

세계화와 일류화

후 기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대전환적 변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갈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형의 질서가 지배하는 과도기에 있으면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21세기적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어떤 질서가 들어서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역사의 흐름은 세계화의 흐름임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는 우리의 자세에는 사고의 혁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고의 혁신이 요구되는 부분은 남의 뒤를 쫓아 가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집념, 이를 이루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등이 필요하며,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남의 것을 모방하는 한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나라의 교역량 규모나 국민총생산 등은 어느덧 세계 11위의 위치를 접하여 많은 나라들이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대할 만큼 우리의 위상과 여건은 큰 변화를 가져 왔다. 6·25 전란의 참화, 부존자원의 빈약함과 좁은 영토의 불리함을 딛고 일어서서 짧은 기간에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낸 데는 한국민만이 지켜온 우수한 문화유산과 특유의 강인성에 바탕한 것이며, 세계 어느 민족도 따를 수 없는 교육에 대한 열성이 그 근본이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교육이라면 어떤 고통과 시련도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희생을 감내하였다. 이것은 빈곤, 무지 그리고 글종의 한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표출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대학의 세기'라 지칭할 정도로 대학교육의 질 관리와 대학교육의



여수수산대 총장 최 인 기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학교육은 정보화·세계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이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개별 대학은 물론 국가 사회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시대적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기존립의 기반마저 붕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대학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주저할 수 없다.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좋은 학생과 실력있는 교수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첫째 일류화가 되어야 한다. 일류화가 되지 못하면 우리들의 어떤 노력도 결국 차위에 머물게 되고 남의 뒤만 쫓는 모습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을, 대학은 전 세계 대학으로부터 인정받는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 시점에서 자신을 냉철히 돌이켜 보고 남과 구별되는 특성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 곧 일류가 되려면 무엇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 선진국들의 첨단산업은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우리 고유의 첨단 이론과 기술을 갖추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셋째,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 혁신적인 생각과 독특한 발상을 하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을 이기려면 독창적 창의력의 배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창의력은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따져보면 세계화는 세계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대학들은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양적 팽창으로 점철된 대학의 기존 관념을 부수고 질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